

기수 최저 월수입 358만원 → 582만원

1인 일평균 6.35회 기승...격차 완화
기승·조교료 등 비경쟁성 수입 인상
김낙순 회장 "지속 성장의 기틀 마련"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1월 1일부터 시행한 경마관제자 상생·협력에 위한 경마제도 개선이 시행 한달이 되어가면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수들의 일평균 기승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늘었으며, 최저 월수입도 358만 원에서 582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2월 경마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중·하위권 기수의 기승기회를 보장하고, 상위권 기수로 상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상위권 기수 중심의 상금 및 기승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1위 순위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하루 기승횟수도 7회로 제한했다.

중·하위권 기수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도 인상을 했다. 경주 출전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를 13만 원으로 인상했고,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를 7만6000원으로 높였다.



한국마사회 부경경마공원에서 결승선을 향해 전력질주를 하는 경주마와 기수들. 한국마사회가 1월부터 경마제도 개선을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기승횟수와 월수입에서 기수들간의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동아 DB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상·하위권 기수 간 기승기회 격차가 완화됐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우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횟수

가 증가(5.7회→6.35회)했다. 기승횟수 기준 상위 20%의 기승횟수가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했고, 하위 20%는 2.1회에서 3.9회로 증가했다. 한 달로 치면

약 7회 가량 기승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기승료 수입은 91만 원이 많아졌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도 완화됐다.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가 2일 감소했지만, 부산경남 경마공원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 원에서 582만 원으로 증가했다. 최상위 기수의 월수입은 3673만 원에서 2162만 원으로 줄어 수입격차가 축소됐다.

기수 수입 중 경쟁성이 높은 순위상금의 비중은 48.6%에서 41.1%로 7.5%포인트 줄었고, 대신 기승료, 조교료와 같은 비경쟁성 수입의 비중이 인상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도 개선한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경력·면허 취득기간의 평가 비중을 10%에서 40%로 확대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경마산업의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서울 국산마 파이널보스 16일 은퇴식

서울 대표 국산마 파이널보스(수, 6세)의 은퇴식이 16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다. 국내 최강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로 통산전적 21전 9승, 대상경주를 4회 우승했다. 데뷔한 2016년 브리더스컵에서 우승하며 국산 최고 2세마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코리아안티비 우승, 2018년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우승했으나 다리건강 악화로 은퇴를 결정했다. 파이널보스의 마주이자 생산자인 김선식 씨의 목장인 새남목장에서 씨수말로 활동할 예정이다. 파이널보스는 경주마 은퇴등급서 2번째로 높은 비마급으로 선정되어 표상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를 마주에게 지급한다.

말박물관 초대전 선정 작가 발표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공모를 통해 2020년 초대작가로 개인 4명, 단체 1팀을 선정했다. 초대전은 수원의 작가그룹 더그림(3월6일~4월2일), 김은주(6월5일~7월12일), 홍상문(7월17일~8월30일), 하진경(10월23일~11월29일) 작가 순으로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더그림은 이오연 작가를 주축으로 윤세호, 이정희, 조윤경, 이지은 작가가 속해 있다. 개성 있는 색과 집감으로 말이 전하는 생명과 생동감, 자연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다. 휴관일은 월요일이며, 개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5시30분 입장마감한다. 문의 02-509-1287/1275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최강 암말 실버울프,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3연패 '정조준'

16일 서울에서 3세 이상 암말 경주
지난해 준우승 청수여결 등 대항마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경마공원에서 16일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개최된다. 총상금 2억5000만 원을 두고 3세 이상 암말들이 경주를 펼친다.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동아일보배를 정복한 디펜딩 챔피언 실버울프가 3연패에 나선다.

●실버울프(암, 8세, 호주, 레이팅 125, 유우환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61.8%)

한국 경마 사상 최고 암말로 평가받는

다. 지난해 퀸즈투어 시리즈 세 경주(목석배·KNN배·경남도지사배)를 모두 우승했다. 현역 암말 중 최고 레이팅이며 지난해 11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했다. 8살의 고령이지만 컨디션 면에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이아로드(암말, 4세, 한국, 레이팅 79, 손병철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83.3%, 복승률 100%)

지난해 데뷔 후 6전5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우승, 경기도지사배 준우승하며 대상경주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500kg이 넘는 큰 체구를 활용해 직선주묘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장기휴양 후

3개월 만의 출전이며, 동아일보배를 겨냥해 컨디션을 조절했다.

●클리어검(암말, 4세, 한국, 레이팅 82, 조창석 마주, 김순근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75.0%)

지난해 경기도지사배 우승이다. 당시 인기마였던 다이아로드를 반마신자로 따돌렸다. 데뷔 후 12번 출전해 6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1800m에서 수말들과 겨루어 작은 체구에도 가공할 종반 추입력으로 우승을 했다.

●청수여결(암말, 5세, 미국, 레이팅 85, 청

수 마주, 박대홍 조교사, 승률 18.2%, 복승률 54.5%)

2019년도 최강팀에 빛나는 18조 마방의 대표 암말이다. 2018년도 목석배 우승, KNN배 준우승하며 퀸즈투어 최우수마에 올랐다. 지난해 동아일보배에서 실버울프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1년여만의 출전이며 체중을 늘려 힘과 지구력을 보강했다.

●리드머니(암말, 6세, 한국, 레이팅 90, 박덕희 마주, 박윤규 조교사, 승률 14.7%, 복승률 29.4%)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준우승했다. 7월 이후 1등급 경주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선입작전이 특기로 단거리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1월 세계일보배에서 수말들과 경쟁해 5위로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정용운 기자



“바르셀로나 승리” 70%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포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벌어지는 이탈리아 세리에A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바르셀로나-헤타페(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0.06%가 리그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원정팀 헤타페의 승리 비율은 12.05%에 불과했고,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17.89%로 집계됐다. 8위 비야레알(66.39%)과 9위 발바오(66.36%)는 각각 레반테(13.96%)와 오사수나(12.06%)를 상대로 투표율 60%를 돌파하며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8경기 레가네스-레알메디시온의 경우 레가네스(34.04%)와 베티스(35.93%)의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승부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했다.

세리에A에서는 17위 레체가 최하위인 20위 스팔2103에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67.36%를 기록했다.

한편 승무패 7회차는 오는 15일(토) 오후 8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6연승 대한항공, KB손해보험전 1~3세트 우세”

배구토토 매치 23회차 중간집계
1·3세트 점수 3~4점차가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포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4일(금) 오후 7시에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시즌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KB손해보험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23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홈팀 대한항공의 우세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세트 승리팀과 점수차를 따지는 배구토토 매치 23회차 게임에서 1~3 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모두 홈팀인 대한항공의 차지로 돌아갔다.

1세트에서 대한항공은 66.60%를 획득해, 33.40%를 기록한 KB손해보험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이어 대한항공은 2, 3세트에서 72.58%와 71.91%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원정팀 KB손해보험의 투표율은 각각 27.42%와 28.09%로 나타났다.

더불어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에서는 1세트(37.19%)와 3세트

(33.25%)의 경우 3~4점차가 1순위를 기록했고, 2세트에서는 2점차(33.76%)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그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KB손해보험과 경기를 펼친다. 현재 대한항공은 승점 58점(21승7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카드에 이어 승점 56점(20승8패)로 리그 2위에 올라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승점 30점(20승18패)로 하위권인 6위에 머물러 있다.

리그 순위 및 승점에서는 격차가 크지만, 양팀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각각 2승 2패라는 동일한 성적표를 받았다. 4번의 맞대결 중 지난해 12월12일 진행된 경기에서는 3-2(KB손해보험 승)의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펼친 양팀이다.

대한항공의 비예나가 721점(리그 득점 부문 1위)으로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승의 분위기가 타고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한 편이다.

한편 이번 배구토토 매치 23회차 게임은 14일(금) 오후 6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스포츠토토는 100원부터 참여 가능해요”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스포츠포토의 진정한 재미는 소액과 소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토토에서는 스포츠베팅의 진정한 재미와 건강한 구매환경을 만들기 위해 게임 당 최소 참여금액을 100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최대 구매 한도 역시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는 5만원, 그리고 전국 6500여개의 판매점에서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미를 느끼고 동시에 중독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 참여해도 충분히 스포츠 관전과 응원의 재미를 높일 수 있고, 완벽한 분석으로 적중 성공한 경우 금전적인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내 스포츠발전에 쓰이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스포츠포토의 구매 문화는 일석 삼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포토는 소조합(2~3경기)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스포츠포토의 최고 인기 게임인 '프로토(PROTO)'의 경우 최소 2경기부터 최대 10경기까지 조합할 수 있다. 조합 경기의 수가



많아 질수록 배당률은 높아지지만, 한 경기만 틀러도 적중에 실패하게 되는 프로토의 특성상 적중률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신 있는 경기만을 선택해 소조합으로 적중의 기쁨을 누리는 스포츠팬들이 많아지고 있다.